

가로수의 교훈

윤민용 / 한국화학장치(주) 상무이사

쌀쌀한 아침 공기가 가을 틈새로 파고드는 겨울을 실감케 한다. 쪽빛풀이 흘러내릴 듯 청명하던 가을하늘에도 어느덧 싸늘한 기운이 감돌아 금시라도 살얼음으로 덮힐것만 같다.

도심을 찾아든 늦가을의 바람이 빌딩숲 사이 사이를 누비며 가을의 잔해를 쓸어 모으고 있다. 휘파람 소리를 내며 쓴살같이 지나가 버린 자동차의 엔진소리에 놀란 양 맞은 편 길가까지 쓸려간 낙엽들이 뿌연 먼지와 함께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큰 길을 가로질러 내 발밑에서 원을 그린다. 노랗게 물들기도 전에 시들어 떨어진 은행나무 이파리가 도시의 늦가을 전경을 연출해 내는 이 낙엽들의 일그러진 현상이 너무나 도시적(?)이라는 느낌을 나에게 남겨 놓는다.

지난 달 우리회사 창립 17주년을 맞아 회사 직원들은 단합과 애사심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뜻을 모아 설악산 대청봉등산을 결정하고 산행길에 올랐다. 1박2일의 짧은 예정이었지만 이제 막 산봉우리에서부터 산등성을 타고 내려오는 단풍물이 우리 일행을 반겨주었고 대청봉 정상에서 바라본 장엄한 자연의 모습은 반복되는 일과속에서 좁아져가던 내 시야를 넓혀주기에 충분했다. 아직도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그날의 감흥이 오늘 이 은행나무 앞에서 정반대의 고통으로 되살아 남는 이유는 무슨 연유에서인가?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한 빛깔로 단장한 설악산의 한그루 나무의 영상이 지금 내앞에 가로수로 서있는 은행나무의 초라한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나게 한 때문이리라. 바짝 말라버린 가지 끝에 매달린 몇안된 은행잎들은 온갖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매연에 시달려 병들었고 검은 먼지마저 덮혀 싱싱한 초록빛깔도, 가을을 차곡차곡 채겨간 노란빛깔도 아닌 잿빛이 감도는 누런 낮으로 병자처럼 늘어져 보는 이에게 측은한 마음을 들게 만든다.

이 나무는 어느 가곡 첫머리의 가사처럼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라고 애원하는 일도 포기

한채 가련한 자기 신체의 한탄을 세월삼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이지 우리가 도시공간에 서있는 나무에 쏟는 정성은 가히 높히 살만하기도 하다. 잘 자라나고 비료도 주고 벌레 없애지게 약도 뿌리고 병든 나무가 있으면 주사도 놓고 영양제도 맞히고, 행여 바람에 쓰러질새라 나무 받침대를 세워 거기에 새끼줄로 꼼짝 못하게 묶어주고...

어디 그 뿐인가? 내년에 더 잘자라라고 몸단장하듯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래도 불평이 있다면 그야말로 배은망덕도 유분수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는 알고 들은 모르는 사람이다. “병주고 약준다”는 말이 바로 이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정붙이고 살만한 곳만이라도 고향으로 삼을수 있는 것이 인생사라면, 이 나무에게도 정붙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면 푸른 자연속을 그리워 하며 시름시름 시들어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야생의 나무는 우리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살충제 없이도 벌레를 잘 이겨낸다.

세상에서 나무만큼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도 없다. 봄이면 가지에 눈을 띄우고 여름내 잎이 무성해지다가도 가을이 되면 결실로 한 해를 맺음하고는 곳곳하게 추위를 이겨내어 이듬해 또다시 새로운 봄을 맞이한다. 그 어느곳에 뿌리를 내리더라도 이러한 계절의 추이가 반복되는 한 정해진 길을 거역할 수는 없다.

도시사람의 입장에서선 도심의 비싼 땅값을 고려해 볼때 나무를 심는것 자체가 펍 선심을 쓴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남는 자투리 공간을 적당히 메꾸는데 나무들이 이용당하며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은행나무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거리를 덮고 있는 시멘트 더미 중간 중간에 손바닥만한 흙에 의지하고 서 있어서 숨통이 막힐 지경일것이고 휴일도 없이 24시간 소음과 매연에 시달려야 하니 가련한 처지이다. 지금 이 은행나무

는 계절에 맞는 옷으로 채 갈아입기도 전에 연이어 찾아드는 계절에게 등을 떠밀려서 이 늦가을 언저리까지 와서는 배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칠대로 지친 이 은행나무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이 은행나무가 우리를 향해 외치는 무언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 도시를 저 설악의 자연과 이어주는 이음줄이 되어야 할 가로수들이 그 무성하고 싱싱한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채 도시의 희생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수는 없다.

하루 하루 가로수를 침식해 들어가는 도시의 환경은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사람도 살아갈 수 없다. 미래에 나타날 치명적 결과를 무시한채 목전의 이익이나 편리만을 위해 계획되고 이룩해 낸 발전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은 이미 발전의 의미를 상실한 것일뿐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자기파멸로 치달는 길에 불과하다.

공장을 끼고 있는 해안에서는 이른바 적조현상 이라는게 나타날 때가 있다. 공장에서 흘러든 폐수가 바다를 오염시키면 작은 물고기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죽어 물을 붉게 물들이는 현상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먹이가 없어져 버려 작은 물고기가 죽게되고 또 그것을 먹이로 삼는 더 큰 물고기도 살 수 없어져서 결국 아무생물도 살지 않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만다.

이처럼 여러 생물이 공존하는 환경에서는 어느 특정 생명체에게만 치명적인 환경오염이란 있을 수 없다.

이 은행나무 가로수나 우리들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한 도시속에서 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 국가안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물줄기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죽어가는 가로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경종임을 명심하고 더 늦기전에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모두의 뜻을 모아야 하겠다.

가로수가 주는 교훈, 우리는 명심하자! *